

미얀마 경제연구소 설립 등 KSP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협의

- 심영섭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1. 출장 개요

(1) 출장자 : 심영섭 선임연구위원(국제산업협력센터)

(2) 출장기간 : 2012년 12월 16일 ~ 12월 19일

(3) 출장지역 : 미얀마 양곤, 네피도

(4) 출장목적

○ MDI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

(5) 주요 일정

○ 12.16(월), 양곤

-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방문

- 미얀마개발자원연구원(MDRI :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) 방문, Mr. Ko Ko Hlaing(대통령 수석자문관, Chief Political advisor to President), Dr. Nay Zin Latt(Advisor to President) 등 면담

○ 12.17(화), 네피도

- 농업관개부(Ministry of Agriculture & Irrigation) 방문, Mr. Myint Hlaing 장관, Soe Hlaing 국장 등 면담
- 국가기획경제개발부(NPED :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& Economic Development) 방문, Mr Set Aung 차관, Dr Wah Wah Maung Deputy Director general 등 면담
- 산업부(Ministry of Industry) 방문, Mr. Than Htaik 국장(Directorate of Industrial Planning) 등 면담

(6) 주요 면담 내용

<방문기관별 면담내용>

1) Myanmar Development Resource Institute

- 한국과 미얀마 양국 모두 MDI 설립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 하에, 한국 정부가 MDI 설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 전달
 - MDI의 설립에 있어 MDI의 기능과 역할을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 공동 인식
 - 사업의 1단계로 KSP 사업을 통해 MDI의 청사진을 설계하고, 2단계로는 KOICA 사업을 통해 청사건립, 기자재지원 등 하드웨어적 측면과 초청연수 등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
- Ko Ko Hlaing 자문관은 MDI의 기능과 관련, 현재 MDI 설립을 산업부(MOI)에서 주관하고 있어 산업정책 기능에 관심이 큰 상황인 반면 KDI는 경제개발에 관한 연구기관인 점을 언급하며, 산업정책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기능의 조화 문제에 큰 관심 표명
 - 이에 대해 대표단은 두 기능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, MDI가 두 기능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DI와 KIET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

- 산업화의 추진과 정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 및 적절한 재정 분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
- Ko Ko Hlaing 자문관은 미얀마에 재정 원조도 중요하나, 산업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장기 국가개발 청사진을 수립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, MDI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표시
- Hlaing 자문관이 이끄는 MDRI는 MDI와 별개로 경제개발 이슈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으로서 MDI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
- 양 측은 앞으로 MDI 설계와 관련, 미얀마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추진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검토하기로 합의

2) Ministry of Agriculture & Irrigation

- 주미안마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대표단을 네피도 인근의 농촌 근대화 시범단지 현장으로 초청하여, 농업 기계화를 위한 경지 정리 작업 및 기계 도입, 수출시장에 맞춘 작물 도입 등에 대해 브리핑
- 이어진 Myint Hlaing 장관과의 면담에서, 미얀마측은 자국의 자연조건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고, 관개사업, 기술도입, 콤팩트인·수확기 등 기계도입, 품종 및 포장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요청
→ 한국이 투자할 경우 수입·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제공을 약속
- 우리 대표단은 동 사안을 담당기관에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
- 우리 대표단은 농민들이 오너십(ownership)을 유지하면서도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정리 및 기계화, 농한기를 활용한 공공 관개작업 등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을 소개하고, 이러한 정책경험 공유의 한 방안으로 KSP 사업을 소개

- 또한 농촌의 리더십 및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농촌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, 새마을운동을 통해 추진했던 경험 등을 논의

- Myint Hlaing 장관은 KSP 및 원조사업을 통해 양국이 농업 발전(미얀마), 식량안보(한국) 등을 통해 '윈윈 협력'을 추구하자고 제의

3)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& Economic Development(NPED)

- MDI 설립과 관련하여, 정부 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 요약

- 구체적으로, 1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KDI 주관으로 MDI의 청사진을, 2단계에서 외교부와 KOICA 주관으로 청사건립 및 기자재보급,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방안 설명

- Set Aung 차관은 MDI 설립과 관련하여 미얀마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체적인 추진방식이 아닌 '효과적인 추진'이며, 특히, NPED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가종합개발계획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

- 현재 미얀마는 '국가종합개발계획'을 통해 대대적인 경제개혁 방안을 수립중이며 2013년 6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으며, MDI 설계도 이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희망

- 미얀마측은 NPED 소관 요청과제로 '경제개발전략수립을 위한 경제기획 역량 강화', '국가계정시스템(SNA) 적용 관련 인적자원개발 연수' 등의 사업이 2013년 KSP 주제로 추진되기를 희망

- 이밖에 한국과 미얀마측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협의체, 경제공동위원회 등의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문제 논의

4) Ministry of Industry

- MDI 설립이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

는데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, 우리 정부는 범정부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는 점 설명

- 사업의 1단계로 KDI가 KIET, KOICA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KSP 사업으로 MDI의 청사진을 설계하고, 2단계로는 KOICA가 KDI, KIET 등과의 협력하에 청사건립, 기자재지원, 초청연수(역량강화) 등을 추진할 계획
-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OICA가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건립 장소, 규모 등을 미리 검토 예정
- MDI가 거시 경제적 연구기능 및 미시적 산업 성장 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보유한 모델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
- 이에 대해 Than Htaik 국장은 MDI는 산업발전 뿐 아니라 국가기획 수준(national planning level)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,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문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
- 다만 국가기획 수준의 MDI 설립은 산업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므로, 미얀마 내부적으로 사업을 산업부 외에 NPED 등 관련 기관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언급

<면담 내용 종합>

- 이번 미얀마 방문은 기획재정부, 외교통상부, KDI, KIET,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 등 MDI 설립과 관련된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공식 방문으로,
 - MDI 설립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조율된 입장을 전달하고 미얀마측의 입장을 청취하여 MDI 설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조성
- 미얀마측은 MDI 설립을 통해 산업발전 및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는 입장 하에, MDI가 거시 및 미시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

구기능을 갖춘 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되기를 희망

- 이에 따라 거시경제에 관한 연구기능과 함께 미시적인 산업별 성장에 관한 연구기능을 갖춘 종합적 국책연구기관으로서 MDI를 설립하는 방안이 구체화될 계획
- 다만, 현재 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산업부(MOI)가 단독으로 총괄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국가기획경제개발부(NPED) 등 개발기획기능을 가진 정부기관들의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
- 미얀마측(MOI)은 국가기획(national planning) 수준의 기능을 담당하는 MDI 설립을 위해 NPED 등 주관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추후 미얀마 정부 내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언급